◆ 3월 2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온라인 : 3월 19일(수) 12:00부터 보도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5. 3. 19.(수)	http://www.kcue.or.kr

문의 : 02-6919-3904 고등교육연구소장: 강낙원 정책연구팀장: 황정원 담당: 정원창 선임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일본의 유학생 정책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유학생 정책에 시사점 제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에서는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서는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비롯한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에서는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의 추진과정,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학생 모집,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협업의 필요성, 우수 유학생 확보와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유학생 관련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은 1980년대 초 '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8년에는 '30만 명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 법무성, 외무성 등 주요 6개 부처가 협업하여 입시·입학·입국 단계부터 대학과 사회의 유치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 진로에 이르는 체계적인 정

책을 추진하였다. 관계부처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 2019년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유학생 40만 명 유치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전의 10만 명, 30만 명 유치 계획이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40만 명 유치계획은 유학생의 질적 관리와 일본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정주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일본의 유학생 정책의 특징은 첫째, 문부과학성을 비롯하여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주요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한 조율을 통해 체계적·유기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정부주도하에 단계적으로 양적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양적확대에서 벗어나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 일본의 유학생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2년에 약 2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 28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0만 명 유치계획은 일본 대학의 국제통용성·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통해 1) 고등교육기관 및 일본어 교육기관의 유학생 수 증가 추세 유지, 2) 학부 유학생 수 OECD 평균수준으로의 확대, 3) 박사과정 유학생 비율 확대, 4) 고교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수 제고 등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203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일본 유학생 취업지원 정책과 사례로, 문부과학성이 2017년부터 외국인유학생의 일본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중 군마대학의 '글로벌 리더십프로그램', 간사이대학의 'SUCCESS-OSAKA' 프로그램, 야마가타대학의 'EPPY' 프로그램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소개하였다.

○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최근의 유학생 정책은 졸업 이후 취업지원 등 정주를 위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첫째, 우수 유학생의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취업이 8%, 국내 진학 11%, 본국 귀국이 29%로 나타났다('22 KEDI). 반면 일본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44.3%가 일본 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22 JASSO). 이와 같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취업정보 부족 및 체류비자 활동 제한 등 국내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일본 대학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유학생 채용 희망 기업과 유학생간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유학생 모집부터,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 간의 협업과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일본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유학생 장학금 지급, 유학정보 제공, 일본어 교육센터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등 유학생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를 범부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셋째, 유학생 유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유학생의 유치, 취업·정주를 위한 통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유학생 취업지원정책 운영대학 사례 >

대학명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주요내용
군마대학	- 도쿄 주변 수도권 국립대학으로 2017년에 문부과학성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함. 2021년부터는 문부과학성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프로그램은 크게 '지역대응형'과 '산업계대응형'으로 구분하여 인턴십을 통한 유학생 지역정착을 추진하고 있음.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의 유학생 수용환경정비 모델을 구축·보급하여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거점을 형성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① 유학생의 지방, 도시, 해외로의 선택지 중에서 지방으로의 정착촉진 모델을 구축하고, ② 지방에 생활기반을 두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며, ③ 직장과 지역에서 유학생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둔다는 세 가지 목표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간사이대학	-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간사이대학은 2017년에 문부과학성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의 3개 대학,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 등 30개 단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SUCCESS-OSAKA' 프로젝트를 5년간 운영함. 사업 종료 후에도 동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유학생 취업촉진 지원 컨소시엄 SUCCESS'를 2021년에 발족하여 문부과학성의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인 'KU 유학생진로형성지원프로그램(KU-SUCCESS)'을 운영 중임 - 프로그램은 ① 일본어교육 단계 ② 진로교육 단계, ③ 인턴십 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적인 프로그램 이수과정이 이루어짐. 프로그램 참여 유학생은 1년차에는 일본어 기초운영능력 양성, 고급실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양성, 2년차에는 비즈니스 일본어양성, 2~4년차에는 인턴십과 진로교육 과목이 이루어짐 -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참가자의 취업률은 2017년 60%에서 2021년에는 90%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남. 간사이대학의 취업률은 프로그램 도입 전 35%에서 도입 후 60%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남
야마가타대학	- 일본 북동부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7년에 문부과학성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EPPY(Employment Promotion Program in Yamagata)' 프로그램을 추진함 - 본 프로그램은 야마가타대학과 지역대학, 지역기업, 지자체 등이 연계된 컨소시엄인 '야마가타 글로벌 인재육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학생 취업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야마가타 모델은 첫째, 기업인에 의한 유학생 교육을 통해 유학생 교육부터 진로디자인 구축을 지원하고, 유학생의 명확한 취업전략을 제시, 둘째, 유학생과 기업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취업동기를 부여, 셋째, 인턴십 교육, 졸업 후 지원, 비자취득 지원 등 유학생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개관도 >

□ 대교협 관계자는 “유학생 유치정책과 관련하여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려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고등교육의 현안분석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게시판 자료실 430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요약

붙임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요약**

○ 미래 고등교육 청사진과 이슈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의 4개 주제에 대해 국내·외 우수사례 검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언 제시

대교협 홈페이지 자료실-430번	주제명	담당자
	1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	전석진 연구원 02-6915-7621
	2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원창 선임연구원 02-6919-3904
	3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	오예진 선임연구원 02-6919-3909
	4 대학원혁신사업의 성과와 발전 과제	김승정 선임연구원 02-6919-3905

▸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

- 본 연구는 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개선 방향을 탐색함. 교육부 정책적 기조에 따른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에 따라 대학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음
  -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학생 부적응과 중도탈락, 전공쏠림 현상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 등의 문제점 발생
  -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적 검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정책적 접근, 대학 유형별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 플랫폼 구축, 기초 학력 보완을 위한 통합적 학업 지원 시스템 운영 등 개선 필요

▸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일본의 유학생 정책의 추진과정,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유학생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유학생 모집,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우수 유학생 확보, 국내 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유학생 관련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치 필요
  -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취업·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위기 극복 필요

▸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

- 미국 대학의 챗GPT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학 사례를 분석함
  - 미국대학의 과반 이상이 챗GPT 사용에 있어 교수 및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 대학들은 상세한 AI사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학교차원에서 세미나 등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아리조나 주립대(ASU): OpenAI와 파트너십 체결, AI Acceleration Team 설치
  - 스탠포드대학교: '2025 Report Outlines Stanford Principles for use of AI' 발간, Stanford AI Playground 실험 공간 설치
  - 챗GPT의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활용한 미래 대학교육의 설계 필요

▸ **대학원혁신사업의 성과와 발전 과제**

-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헌 분석과 실무자 면담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진단함. 대학원 혁신 양상 분석을 통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 및 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발전 과제를 제시함
  -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대학원 혁신 체제의 정합성 향상
  - 학술 문화에 기반 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체계화
  - 대학원생 처우 개선 및 역량 개발 기회의 확대
  - 대학 규모, 지역, 특성화 등에 따른 연구중심대학 모델 개발 및 지원 방식 개선